

타이완 남도어족 루카이어 한글 서사법 창제*

全廣鎭**

◁ 목 차 ▷

- I. 서론
 - II. 루카이어족 개황
 - III. 루카이어 음운 체계
 - IV. 한글 서사 방안 검토
 - V. 루카이어 한글 서사법
 - VI. 루카이어 한글 서사 예시
 - VII. 맺음말
-

I. 서론

문자는 한 언어, 한 민족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¹⁾. 문자의 우수성은 얼마나 많은 언어의 書寫 體系(writing system)로 적용됐는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한글로 하여금 더욱 많은 민족의 언어를 서사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란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은 1991년도였다. 이 논문도 그런 발상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안되었다.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7-A00220)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민족과 언어는 1:1의 관계이지만, 민족과 문자는 1:1이 아니라 1:0, 1:2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글이 우리 한민족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초월하는 것이 한글 사랑의 첫 걸음이자, 세종대왕의 참 뜻을 더욱 크게, 더욱 널리 선양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일찍이 ‘보물섬’이란 뜻에서 ‘Formosa’란 명칭으로 서구에 알려진 바 있는 타이완 섬에는 南島語族(Austronesian Language Family)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의 본거지였다. 그래서 현지 정부는 그들을 ‘原住民’이라고 부른다. 이들 가운데 인구가 4,000명 이상이고 집단 주거지역이 있어서 언어가 소멸될 가능성이 없는 종족은 10개이다(전광진 2009, 354). 그 중에서 인구 순으로 여섯 번째 종족이 루카이(魯凱, Rukai)족이다. 사용 인구는 1997년 현재 12,304명인데(다니엘스 2006, 277), 이들의 언어 및 문자 생활에 대해서 高偉(2008, 19)는 다음과 같이 개괄하고 있다.

“루카이족은 고유의 문자가 없어, 초기에 注音符號, 方音符號로 그들의 언어를 서사하다가, 후에 알파벳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일부 음들은 그 음가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루카이 사람들은 자기 언어를 서사할 수 있는 부호를 창조해 내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오늘날 루카이 사람들은 외부인들과 소통할 때는 중국어를 사용한다.”²⁾

이렇듯, 고유의 언어를 완벽하게 서사할 수 없는 루카이 사람들에 대하여 한글 서사법을 초보적으로 검토한 것은 2년 전이었다. 머리지음이 20개이고 꼬리자음이 없고, 모음이 4개 밖에 되지 않는 루카이어에 대한 검토 결과, 한글 서사의 적합성이 83%라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전광진 2009, 366-367).

이러한 선행 검토 결과가 본 연구의 발판이 되었다. 루카이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 창제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본 연구는 먼저 루카이족의 개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 루카이어의 음운 체계를 6대 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 볼 것이다. 다시 이를 토대로 한글 서사법 적용 원칙(전광진 2002, 2003)에 입각하여 각 음소에 대한 한글 자모 서사 방안을 검토하여 〈루카이어 한글 서사법〉을 창제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이 체계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기본어휘와 문장을 대상으로 한글 서사를 시도해 볼 것이다. 이로써 한글 서사법이 또 하나의 지평을 확보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다지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2) “魯凱族群沒有文字，早期曾用注音符號、方音符號標示語言，後來使用羅馬拼音。由於某些音很難標注音值，魯凱人都非常希望創造出自己的語言標示符號。隨著時代的發展，如今的魯凱人一般都用漢語與外界溝通。”

II. 루카이족의 개황³⁾



루카이족의 명칭은 근대에 붙여진 것이다. 청나라 때에는 루카이족은 排灣拉瓦爾亞群 및 布曹爾亞群과 더불어 ‘傀儡番’이라 합칭되었다. 高雄縣에 분포되어 있는 下三社群의 루카이족은 자칭 ‘薩里先’이라 하는 데, ‘산 속의 사람’이란 뜻이다. 루카이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통상 해발 700미터 정도인데, 해발 2,400미터 이상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排灣족 사람들은 루카이족을 ‘泰札雅’(taizaya)이라 부르는데, ‘上方’, ‘上游’, ‘深山’이란 뜻이다. 屏東縣 霧台鄉에 거주하고 있는 루카이인들은 자칭 ‘루카이’(魯凱 Rukai)라고 하는데, 이 부족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 종족을 총칭하는 말이 되었다. 이 명칭은 일본 식민지 시기에 처음 등장하여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다. ‘루카이’라는 말은 ‘깊숙하고 그늘지고 쌀쌀한 산 속의 개울가’를 뜻한다. 이것은 루카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거주하였던 자연 환경과 일치한다.

3) 루카이족의 개황은 高偉(2006)의 저술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번역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루카이족은 장기에 걸쳐 다른 종족과 混居함에 따라 루카이 문화가 다문화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지리적으로 살펴보자면, 서쪽으로는 布農족과 鄒족 그리고 平埔족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언어도 혼종 상태를 보이고 있다. 동쪽으로는 排灣족과 阿美족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루카이족은 排灣族群으로 분류된 적이 있다. 초기의 일부 학자들은 타이완의 원주민을 6개 종족으로 분류하면서, 루카이족을 卑南族群으로 분류하였다. 후에 지리적 분포, 종족의 특징과 유대 관계를 기초로 다시 분류하면서 루카이족을 하나의 독립된 종족으로 간주하였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 학자들은 루카이족의 지리적, 인적 연관성을 기준으로 東루카이족, 西루카이족으로 나누고 다시 下三社群을 떼어내서 총 3개 종족으로 나누었다. 즉, 中央山脈의 서쪽에 분포되어 있는 西루카이족과 下三社群, 중앙산맥의 동쪽에 분포되어 있는 東루카이족으로 대별된다. 東루카이족의 문화와 언어는 西루카이족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排灣族群의 북부 부락이 루카이족의 생활 구역과 접경하고 있어, 두 종족이 장기에 걸쳐 通婚을 하였던 관계로 문화, 풍속, 예술, 사회제도 등 다방면에 걸쳐 서로 흡사한 점이 있다. 高雄縣 茂林鄉의 루카이족은 인근의 排灣 문화를 다방면으로 흡수함에 따라 그들의 풍속과 생활 방식이 排灣족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비슷한 점이 있다.

루카이족은 排灣족과 풍속 습관이 서로 흡사한 것은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복장에 나타난 꽃무늬, 귀족과 평민의 신분 제도, 뱀 숭배, 뛰어난 나무 조각 기술 등 비슷한 점이 매우 많다. 그렇지만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해보면, 두 종족간의 차이가 매우 현격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두 종족의 언어가 완전히 다른 점, 排灣족은 雙系사회이고 남녀 불문의 장자 상속제인데 비하여, 루카이족은 父系사회의 장남 상속제를 따르고 있다. 排灣족은 귀족에게 권리가 집중되어 있는데 비하여, 루카이족은 귀족의 권력이 직계와 방계로 분산되어 있다.

루카이인은 타이완 원주민 중에서 인구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타이완 원주민에 대한 인구 조사는 일제 시대인 1905년에서 시작된 초보적인 통계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초기 조사에서는 루카이인을 卑南人 및 排灣人と 합산하였다. 이 시기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루카이족은 대략 1100戶의 6000여 명이고, 다른 종족과 混居하고 있는 곳은 총 22개 부락이다.

타이완 정부의 호적 조사는 父系를 기준으로 루카이족을 9000여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루카이 사람들은 친족 관계를 父母 쌍방을 并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통계를 상회하여 최소한 1만 명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 가운데 霧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卑南과 茂林 순이다. 東루카이 사람은 100여 호에 1000여 명이다. 高山지역은 경제 여건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지와 도회지로 이주함에 따라 인구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루카이족은 주로 타이완 섬의 남부 中央山脈 서쪽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高雄縣 茂林鄉, 屏東縣 霧台鄉 산간 지역, 그리고 台東縣 卑南鄉 淡水溪 상류, 濁口溪 유역, 隘寮溪 유역 및 台東縣 大南溪 상류 일대인데, 그 중간에 중앙산맥의 霧頭山과 大武山이 가로 놓여 있다. 이 지역의 북쪽으로는 布農族, 남쪽과 서쪽으로는 排灣族, 동쪽으로는 布農族, 卑南族, 阿美族이 거주하고 있다.

루카이族은 隘寮群, 下三社群, 大南群 이상 세 支群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隘寮群은 西魯凱群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은 남북의 隘寮溪 유역, 그리고 屏東縣 霧台鄉을 중심으로 好茶, 去露, 霧台, 佳暮, 大武, 阿扎 등의 여러 부락에 거주하고 있다. 下三社群은 濁口群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은 高雄의 濁口溪 연안에 거주하고 있다. 행정 구역으로는 高雄縣 茂林鄉의 茂林, 萬山, 多納 부락이 이에 속한다. 이 세 부락은 언어 차이가 매우 크다. 풍속과 언어가 같은 종족의 다른 族群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鄒族이나 布農族의 경우만큼 내적 차이가 큰 편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세 부락을 동일한 族群으로 분류하더라도 무리가 따르지는 않는다. 大南群은 東魯凱群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大南溪 연안의 台東 大南社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행정 구역으로는 台東縣 卑南鄉 大南村(지금의 東興村) 및 初鹿村의 斑鳩 부락이 이에 해당된다. 斑鳩 부락 사람들은 卑南族과 混居함에 따라 고유의 언어와 풍속이 많이 달라졌다.

루카이族群의 분포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괄하자면 中央山脈 남부의 산간 지대이다. 즉 卑南山 주봉의 이남 지역과 北大武山의 중간 지대로 해발 3000 미터 정도의 고산 지역이다. 교통 및 통치의 편리를 위해서 일본 식민지 정부는 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도 하였다. 霧台鄉에 거주하던 일부 魯凱人이 평지에 가까운 瑪家鄉의 三和村과 三地門鄉의 青葉村으로 이주하였다. 台東 지역의 魯凱人도 점차적으

로 평지로 이주하여 卑南鄉의 大南村(東興社區)에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高雄縣 茂林鄉 일대에 거주하는 魯凱人의 경우에는 布農族, 鄒族, 平埔族과 이웃하고 있음에 따라 문화, 언어, 생활 풍속에 있어서 이들 종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Ⅲ. 루카이어 음운 체계

한 언어에 대한 서사법을 강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해당 언어의 음운 체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그에 앞서서 착수해야 하는 것은 언어 조사이다. 다행하게도 루카이어에 대하여는 언어 조사를 통한 음운 체계가 발표된 것이 있다. 李壬癸(1991), 齊莉莎(2000), 原民會(2005)가 그것이다.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여 하나로 귀납시키는 것이 한글 서사법 입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단계 작업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루카이족은 타이완 섬의 중앙산맥 남동부의 고산지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락간의 교통이 편리하지 않던 관계로 방언 분화가 다른 종족에 비하여 상당히 큰 편이다. 그리하여 총 14개 부락이 6종 방언으로 나뉘게 된 원인도 이러한 사실에 기인한다(高偉 2006, 18). 6종 방언이란 ①霧臺 방언, ②東部 방언, ③大武 방언, ④多納 방언, ⑤萬山 방언, ⑥茂林 방언을 말한다. 루카이어 음운체계도 이들 6대 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해 본 후에 어느 특정 방언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기로 하겠다.

1. 李壬癸(1991)의 음운체계

루카어의 음운 체계를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한 것은 李壬癸(1991)를 꼽을 수 있다. 이것은 타이완 섬에 본거지를 둔 총 15개 원주민족에 대하여 “語音符號系統”을 열거한 것이다. 이 가운데 루카이어 음운 체계를 도표로 나타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순음	치간	설첨	권설	설근	후음
파열음	p		t		k	ʔ(')
	b		d	d(D)	g	
파찰음		θ(th)	c			
마찰음		ð(z)	s			h
	v					
비 음	m		n		ŋ(ng)	
설측음			l	l(L)		
顫 음			r			
접근음	w		y			

	前	央	後
高	i		o~u
中		ə[e]	
低		a	

이 도표에 대한 본인의 보충 설명에서 말한 바와 같이 6종 방언 모두 이에 열거된 모든 음성 부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沒有一個方言需要使用上面所有的語音符號). 즉, 6종 방언에 쓰이고 있는 음소를 모두 열거한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각 방언에서의 차이를 총 10개 항목으로 보충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한글 서사법을 고안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주 형식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다⁴⁾.

李任癸(1991)에는 방언 차이에 아울러 각 음소의 실제 발음⁵⁾에 대한 기술이

- 4) 李任癸(1991, 40-41)에 기술된 방언 분기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大南、多納、萬山才有喉塞音。② 萬山沒有齒間清擦音 θ。③ 茂林、多納都沒有捲舌的邊音或閃音 L。④ 多納、大武沒有顫音 r。⑤ 萬山沒有濁塞音 b, d, D, g。因此, 它的 ð 可用 d 或 z 代替。⑥ 只有萬山和大武才有喉擦音 h。大南只有少數字含 h 音, 疑爲借字。⑦ 大南很少帶 p 音的字, 疑爲借字。⑧ 茂林、萬山不用半元音 w, y。⑨ 茂林方言多三個元音, 因 i 與 e 對比, u 與 o 對比, i 與 ə 對比。⑩ 只有大南方言有少數字含捲舌的清塞音 t(T), 是受到粵南語的影響。
- 5) 이 도표에서 낱말을 채집할 때 쓴 표기법이 실제 발음과 다를 경우, 괄호 안에다 실제 발음을 적어 놓음으로써 그 차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보충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루카이어의 음운을 이해하고, 서사법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옮겨 보자면 다음과 같다.

- (1) p, t, T, k는 모두 무기 무성 파열음이다.
- (2) c는 무성 설첨 파열음 ts를 나타낸 것으로 무기음이다.
- (3) b, d, D, g는 모두 유성 파열음이다.
- (4) t, d는 발음부위가 약간 앞쪽인 舌尖齒音이다. 齒間마찰음은 각각 th, z로 나타난다. 萬山 방언에만 후음 h가 있다. 따라서 혼동의 여지가 없다. c, s, n, l은 모두 발음부위가 약간 뒷쪽인 舌尖齒齶音이다.
- (5) T, D, L은 모두 권설 성분의 舌尖後音이다.
- (6) 霧台방언, 大南방언, 大武방언, 多納방언, 萬山방언은 오로지 4개의 모음, 즉 i, o (혹은 u), ə (e으로 표기), a만 있다. 이 가운데 u와 o은 자유 변이음이다.
- (7) 茂林 방언에서는 어말에 중모음 e, o가 출현되는데, 실제 음가는 조금 더 낮고 길게 발음된다. 각각 [ɛ:]와 [ɔ:]에 상당한다. 그 밖에도 설위가 낮고 뒤편에서 발음되는 평순 모음이 하나 더 있다.
- (8) 장모음은 동일 모음을 겹쳐서 표기 한다. 예) kaang ‘물고기’, boo ‘활’(弓), Lee ‘목’(頸).
- (9) 매 음절에는 오로지 하나의 주요모음만 있다. 주요모음이 아닌 경우에는 반모음 w 또는 y로 표기한다. 예) wakane ‘떡다’, walangay ‘사다’(買), twaumas ‘하느님’, kyalaLa ‘듣다’.

2. 齊莉莎(2000)의 음운체계

齊莉莎(2000, 40-50)에 제시된 음운 체계는 루카이어 6종 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霧台 방언만을 대상을 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1983년부터 1984년까지 2년에 걸쳐 직접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한다. 먼저 이를 도표로 옮겨 보자면 다음과 같다.

	순음	설첨음	설면음	권설음	설근음
파열음	p	t			k
	b	d		D[d]	g
파찰음			c		
마찰음		th[θ], s			
	v	z[ð]			
비 음	m	n			ng[ŋ]
설측음		l		L[l]	
顫 音		r			
접근음	w	y			

	前	央	後
高	i		u
中		e[ə]	
低		a	

齊莉莎(2000, 44-46)는 실제 발음이 표기법과 다를 때에는 그 실제 발음을 [] 안에다 적어 놓았다. 자음 4개, 모음 1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은 알파벳으로 서사할 경우 그 한계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D[d]와 L[l]은 한 단어 내에서 대문자와 소문자가 함께 쓰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도표 하단에는 각 음소에 대한 음성학적 자질이 보충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한글 서사법을 수립함에 있어서 참고 가치가 높은 자료이므로 하나하나 옮겨 보기로 하겠다.

- (1) 파열음 : 루카이어의 /p, t, k/는 일반 언어에 흔히 나타나는 무기 무성 파열음이다. /p, t, k/는 중국어의 ㄅ, ㄆ, ㄎ에 상당하다. /b, d, g/는 각각 /p, t, k/와 발음 부위가 동일한 유성 파열음이다. 발음 시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무기음이며 성대가 울리는 유성음이다. 그런데, /D/는 권설음이다. 중국어에는 /b, d, D, g/에 대응되는 것이 없다⁶⁾.
- (2) 파찰음 : /c/는 유기 파찰음으로 중국어의 ㄘ와 발음이 같다. /c/가 고모음

/i/의 앞에 출현될 때에는 음운 변화를 일으켜 동일 부위인 [ʃ]로 발음된다. 이 경우의 음은 중국어의 < 와 같다⁷⁾.

- (3) 마찰음 : 루카이어에는 2개의 무성 마찰음 /s/와 /th/, 2개의 유성 마찰음 /v/와 /z/가 있다. 그 가운데 /th/와 /z/는 齒間마찰음이다. /s/는 중국어의 ㅅ와 같다. 다만 높은 음인 /i/의 앞뒤에서 때때로 구개음화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중국어의 ㅈ와 같다. /v, th, z/는 대응되는 중국어 음소가 없다. /v/는 영어의 /v/(예 'village')와 같은 발음이다. /th/는 영어 어말에 등장되는 /th/([θ])와 같이 읽는다(예 'teeth'). 그리고 /z/는 영어 어두에 등장되는 /th/([ð])와 음이 같다(예 'the')⁸⁾.
- (4) 비음 : /m, n, ng/는 /p, t, k/와 동일 발음 부위의 비음이다. /m, n/는 중국어의 ㅁ, ㄴ와 같다. /ng/은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주음부호가 없다⁹⁾.
- (5) 설측음과 탄설음 : 루카이어는 2개의 설측음 /l, L/을 보유하고 있는데, 후자는 捲舌音이다. /r/는 탄설음이다. /l/은 대체로 중국어의 ㄹ에 상당한다. /L, r/은 이에 상응하는 중국어 주음부호가 없다¹⁰⁾.
- (6) 접근음 : 루카이어의 접근음 /w, y/는 중국어의 ㄹ, ㄱ와 같은 음이다¹¹⁾.
- (7) 모음 : 루카이어는 4개의 모음 /i, a, e, u/을 가지고 있다. /i, u/가 실제 언어 환경에서는 때때로 [e, o]에 가깝게 발음되기도 한다. /i, a, u/는 중국어의 一, ㄱ, ㄴ 같이 발음된다. /e/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央中 모

6) “塞音 : 魯凱語的/p, t, k/是一般語言常見不送氣的清塞音, /p, t, k/讀如國語的 ㄅ, ㄊ, ㄎ。/b, d, g/分別是於/p, t, k/同部位的濁塞音, 發音時都不送氣, 聲帶顫動。而 /D/是捲舌音。國語中沒有相當於/b, d, D, g/的音和符號。”

7) 塞擦音 : /c/是個送氣塞擦音, 讀如國語的 ㄑ。/c/出現在前高元音/i/時, 會產生變化的同位音[ʃ], 讀如國語的 <。

8) 擦音: 魯凱語有兩個清擦音/s/和/th/兩個濁擦音/v/和/z/, 其中/th/和/z/是齒間擦音。/s/讀如國語的 ㅅ, 但在高音/i/之前後往往顎化, 讀如國語的 ㅈ。至於/v, th, z/, 國語沒有相對的音位:/v/讀如英文的/v/, 如 'village';/th/讀如英文詞尾的/th/(讀如 [θ]), 如 'teeth'; 而/z/讀如英文的詞首/th/ (讀如 [ð]), 如 'the'。

9) 鼻音 : /m, n, ng/是/p, t, k/同部位的鼻音。/m, n/讀如國語的 ㅁ, ㄴ; 至於/ng/沒有完全相對的國音符號。

10) 邊音和顫音 : 魯凱語有兩個邊音/l, L/, 後者為捲舌音。/r/是個顫音。/l/大致相當於國語的 ㄹ。至於/L, r/, 國語沒有相對的符號。

11) 滑音 : 魯凱語的滑音/w, y/讀如國語的 ㄹ, ㄱ。

음이다. 대체로 중국어 주음부호 ㄣ에 상당한다¹²⁾.

이상과 같은 음성학적 자질에 대한 기술 외에 자음과 모음의 분포에 관한 보충 설명도 있다. 이것도 한글 서사에 참고 가치가 높은 것이므로 이에 옮겨 보기로 하겠다.

- (1) 24개 자음은 모두 어두 혹은 2개 모음 사이에 출현될 수 있고, 각종 단모음의 뒤에 연이어 나올 수도 있다. 자음이 낱말의 어말에 출현되지 않는 것은 모든 낱말이 모음으로 끝맺는 개음절(open syllable)이기 때문이다¹³⁾.
- (2) 자음 /v, z/는 통상 /a/의 앞이나 뒤에만 출현된다.¹⁴⁾
- (3) 복자음이 없다¹⁵⁾.
- (4) 루카이어의 4개 모음 /i, a, e, u/는 낱말의 어두, 두 자음의 사이 혹은 낱말의 어말에 출현될 수 있다¹⁶⁾.

루카이어 음운 체계에 대한 齊莉莎(2000, 44-46)의 보충 설명 가운데 음성학적 자질에 관한 정보 말고도 중국어의 注音符號¹⁷⁾와 결부시킨 것이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다. 注音符號로 루카이어를 서사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
- 12) 元音 : 魯凱語有四個元音/i, a, e, u/, 其中/i, u/兩個元音在語音上有時候會接近 [e, o], /i, a, u/讀如國語的 一、ㄚ、ㄨ。/e/是一般的央中元音, 大致相當於國語的 ㄝ。
 - 13) 二十個輔音都可出現字首或兩個元音之間, 也可以接在各種單元音之後。 輔音從不出現在字尾因為單字結尾為開音節。
 - 14) /v, z/兩個輔音平常出現在/a/的前後。
 - 15) 沒有輔音群。
 - 16) 魯凱語的四個元音/i, a, e, u/可出現在字首、兩個輔音之間或字尾。
 - 17) 「注音符號」(SNS : Sound-Notating Symbol): 1913년 「讀音統一會」에서 심의 제정하여 1918년에 北洋政府의 教育部가 정식 공포한 중국어 표음 체계를 말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1958년 「漢語拼音方案」을 공포하기 이전 까지 사용하였으며, 臺灣에서는 현재에도 그대로 연용하고 있다. 이 명칭은 원래 「注音字母」(Sound-Notating Alphabet)이었으며, 「國音字母」라고도 하였는데, 1930년 國民黨 정부가 「注音符號」라 개칭하였다.

3. 原民會(2005)의 음운 체계

原民會(2005)에 소개되어 있는 루카이어 음운 체계는 알파벳 서사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로마자모와 국제음표를 동시에 열거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루카이어를 6대 방언, 즉 ①霧台, ②東部, ③大武, ④多納, ⑤萬山, ⑥茂林 방언별로 나누어 그 음운체계를 인용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발음 부위 발음 방법	서사 자모	방언별 상황						국제 음표
		①	②	③	④	⑤	⑥	
쌍순파열음(무성)	p	○	○	○	○	○	○	p
쌍순파열음(유성)	b	○	○	○	○	—	○	b
설첨파열음(무성)	t	○	○	○	○	○	○	t
설첨파열음(유성)	d	○	○	○	○	—	○	d
설근파열음(무성)	k	○	○	○	○	○	○	k
설근파열음(유성)	g	○	○	○	○	—	○	g
후파열음(무성)	'	—	—	—	○	○	—	?
권설파열음(무성)	tr	—	○	—	—	—	—	t
권설파열음(유성)	dr ⁽¹⁾	○	○	○	○	—	○	d
설첨파찰음(무성)	c	○	○	○	○	○	○	ts
쌍순마찰음(무성)	v	○	○	○	○	○	○	v
치간마찰음(무성)	th	○	○	○	○	—	○	θ
치간마찰음(유성)	dh ⁽²⁾	○	○	○	○	○	○	ð
설첨마찰음(무성)	s	○	○	○	○	○	○	s
설첨마찰음(유성)	z ⁽²⁾	○	(○)	(○)	(○)	○	○	z
후마찰음(무성)	h ⁽³⁾	(○)	(○)	○	(○)	○	(○)	h
쌍순비음	m	○	○	○	○	○	○	m
설첨 비음	n	○	○	○	○	○	○	n
설근 비음	ng	○	○	○	○	○	○	ŋ
舌尖설측음	l	○	○	○	○	○	○	l
捲舌설측음	lr ⁽⁴⁾	○	○	○	○	○	(○)	ɭ
舌尖탄설음	r	○	○	○	—	○	○	r
雙唇반모음	w	○	○	○	○	○	○	w
舌面반모음	y	○	○	○	○	○	○	j
Total	24	22	23	22	22	18	22	24

前高모음	i	○	○	○	○	○	○	i
前中모음	é	—	—	—	—	—	○	é
央高모음	i	—	—	—	—	—	○	i
央中모음	e	○	○	○	○	○	○	ə
央低모음	a	○	○	○	○	○	○	a
後高모음	u	○	○	○	○	○	○	u
後 _L 中모음	o	—	○	—	○	○	○	o
Total	7	4	4	4	4	4	7	7

※설명

- (1) 茂林 방언에는 복자음이 있다. 이를테면 /dr/ 등이 그렇다. 유성 권설 파열음 /d/를 나타내는 자모인 dr과 구별을 하기 위하여 복자음 /dr/을 나타내는 자모는 d_r 같이 띄워서 표기한다¹⁸⁾.
- (2) 大武방언, 多納방언 및 동부 방언에서 유성 설첨 마찰음 /z/을 나타내는 자모 z는 오로지 차용어에만 등장한다(괄호로 표기되어 있음). 다만 霧台방언, 萬山방언 및 茂林방언에서는 유성 齒間 마찰음인 /ð/ 및 유성 설첨 마찰음인 /z/이 각각 변별 음소(distinct phonemes)로서 대립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 까닭에 루카이어의 경우 /ð/ 및 /z/ 이 두 음을 나타내는 자모 dh와 z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된다¹⁹⁾.
- (3) 萬山 방언과 大武 방언의 경우 무성 喉마찰음인 /h/가 하나의 음소 지위를 지닌다. 그러나 다른 방언에서는 /h/음을 나타내는 자모인 h가 차용어에만 출현된다(괄호로 표기해 놓았음)²⁰⁾.
- (4) 茂林 방언의 경우 권설 설측음 /r/이 하나의 변별적 음소인지? 그것이舌尖 탄설음 /r/과 대립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18) 茂林魯凱語有子音群，如 / dr / 等：爲求與表濁捲舌塞音 / d / 之字母 dr 作區隔，表子音群 / dr / 之字母可以 d_r 表之。

19) 在大武、多納及東魯凱語中，表濁舌尖擦音 /z/ 的字母 z 僅出現在借詞中(以括號表之)，但在霧台、萬山及茂林方言裡，濁齒間擦音 /ð/ 及濁舌尖擦音 /z/ 兩音都是音位(distinct phonemes)，有對立關係：是故魯凱語中，表 /ð/ 及 /z/ 兩音的字母 dh 及 z 均應存在。

20) 在萬山及大武方言，清喉擦音 /h/ 是一個音位：但在其他方言中，表 /h/ 的字母 h 僅出現在借詞裡(以括號表之)。

심도 있게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잠정적으로 이에 열거해 놓았다²¹⁾.

李壬癸(1991), 齊莉莎(2000), 原民會(2005)의 음운체계에는 자음과 모음 음소에 대하여 각각 두 가지 표기가 제시되어 있다. 설근비음 /ŋ/을 ng로 표기하는 매우 일반화된 관례를 제외하고 국제음표와 동일한 알파벳이 없는 특수 음소를 어떻게 달리 표기하고 있는지를 도표로 나타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국제음표	李壬癸 (1991)	齊莉莎 (2000)	原民會 (2005)
권설파열음(유성)	d	D	D	dr
설첨파열음(무성)	ts	c	c	c
치간마찰음(무성)	θ	th	th	th
치간마찰음(유성)	ð	z	z	dh
권설설측음	l	L	L	lr

위의 표에 열거된 음소에 대한 알파벳 자모 표기는 서사법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알파벳으로 서사하는 경우에 기존 알파벳이 지니고 있는 음성 정보와 모종의 교란이나 착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IV. 한글 서사 방안 검토

고유의 문자가 없는 언어를 한글로 서사하는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로바어, 어윙키어, 부눈어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를 고안할 때(전광진 2002; 2008; 2010)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21) 在茂林方言, 捲舌邊音/r/是否是一個音位? 其與舌尖顫音/r/否有對立關係? 仍待查考, 目前暫時列入。

첫째, 대응 한글 자모의 선정은 음성학적 유사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둘째,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자모를 최대한 활용한다. 다만 컴퓨터 입력이 가능하다면 ‘옛 한글 자모’도 취할 수 있다.

셋째, 보조 기호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이 원칙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서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넷째, 대상 언어의 음절 구조를 최대한 존중한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원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상 네 가지 원칙을 루카이어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자음과 모음을 쉽고 편리하게 서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로 하겠다.

1. 자음의 서사

루카이어 자음²²⁾의 서사에 있어서 먼저 고려할 것은 6대 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방언 하나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6대 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삼자면 총 24개의 자음을 서사할 수 있는 자모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한글의 현용 자모 19개로는 다소 부족한 점이 따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6대 방언 가운데 사용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霧臺 방언을 대상으로 삼는 안을 채택하기로 하겠다.

霧臺 방언의 자음이 齊莉莎(2000)에는 20개가 설정되어 있는데, 原民會(2005)에는 22개가 설정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齊莉莎(2000)의 20개에 原民會(2005)의 후음 h만을 첨가한 21개로 설정하여 한글 자모 서사 방안을 강구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서사 대상 머리자음 21개를 열거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22) 루카이어는 머리자음만 있고 꼬리자음은 없다. 齊莉莎(2000c, 46)는 자음과 모음의 분포에 대하여, “(1)二十個輔音都可出現字首或兩個元音之間, 也可以接在各種單元音之後, 輔音從不出現在字尾因為單字結尾為輔音群. (2) /v, z/兩個輔音平常出現在 /a/的前後” 같은 보충 설명을 달아 놓았고, 음절구조별로 해당 낱말을 예시해 놓은 곳 (p.50)에도 VC에 해당하는 예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루카이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꼬리자음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p	t		k
b	d	D[d]	g
		c	h
	th[θ]	s	
v	z[ð]		
m	n		ng[ŋ]
(1)		l	L[ɭ]
	r		
w	y		

1단계 서사 방안 : “음성학적 유사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자모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쉽고 간단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은 12개 자음인데 그 명세는 다음과 같다.

/p/[ㅍ], /t/[ㅌ], /k/[ㄱ],
 /b/[ㅂ], /d/[ㄷ], /g/[ㄱ],
 /c/[ㅈ], /s/[ㅅ], /h/[ㅎ],
 /m/[ㅁ], /n/[ㄴ], /l/[ㄹ],

2단계 서사 방안 :

① “컴퓨터 입력이 가능하다면 ‘옛 한글 자모’도 취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훈민정음 자모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서사 가능한 자음은 아래 2개가 있다.

/v/ → [ㅎ]
 /ng/ → [ㅇ]

② 자음에 합산되어 있는 2개 반모음 /w/, /y/ 출현 위치에 따라 [우], [이] 같은 독립 음절로 서사하거나 모음 /u/, /i/와 충돌이 되지 않는 음절 내부에서는 [ɥ], [ɥ]로 서사하면 될 것이므로 사실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단계 서사 방안(변칙 적용)

루카이어에는 1-2단계의 원칙으로는 한글 서사가 불가능한 음소가 있다. 즉, /d/, /θ/, /ð/, /l/, /r/ 이상 5개 자음이 그것이다. 이 자음들을 음성학적 유사성 원칙에 입각하여 서사할 수 있는 한글 자모는 없기 때문에 1~2 단계에서 동원되고 남은 한글 자모, 즉 遊休 자모를 활용하는 변칙을 적용해 보기로 한다²³⁾. 이러한 難寫 자음 5종에 대하여 유희 자모를 활용한 서사 방안은 다음과 같다²⁴⁾.

/θ/ → [ㅉ]

/ð/ → [ㅈ]

/d/ → [ㄷ]

/r/ → [ㄹ]

/l/ → [ㄴ]

2. 모음의 서사

루카이어의 6대 방언에 쓰이고 있는 모음은 총 7종인데, 霧台 방언에는 아래 같은 4종 모음이 쓰이고 있다.

23) 훗날 이 한글 서사법을 루카이어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이 다섯 가지 자모의 발음이 한국어의 경우와 다른 점을 각별히 인식시키면 사실상 큰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이 아니라 루카이어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4) 이 논문이 탈고 된 후, 게재 심사 단계에서 익명의 심사자가 이러한 유희 자모 활용의 미봉책 보다는 부가 기호를 고안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하였고, “/d/→ ㅈ, /r/→ ㄹ, /l/→ ㄴ 같은 복자음” 사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고견을 피력해 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이에 적어 둔다. 한글 자모를 변형시키는 부가 기호의 도입이나 제정은 한글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컴퓨터 입력이 곤란한 점이 있다. 복자음 사용 방안도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약점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미봉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ㄹ/이 루카이어에서는 /r/로, 한국어에서는 [ph]로 각각 달리 읽히는 것은, 루카이어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 사람이 루카이어를 배울 때는 문제가 되지만, 각 언어 내부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알파벳 자모가 각 언어에서 모두 동일하게 발음되는 것은 아닌 것. 특히 /j/가 독일어와 영어에서 각각 달리 발음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유희 자모 활용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i u
 e[ə]
 a

이것을 한글로 서사하는 것은 간단하다. 즉 /i/〔ㅣ〕, /u/〔ㅜ〕, /e/〔ㅓ〕, /a/〔ㅏ〕로 대입하면 된다. /e/를 [에]가 아니라 [ㅓ]로 서사한 것은, 이 모음의 실제 발음이 [e]가 아니라 [ə]이기 때문이다. 루카이어의 모음을 한글로 서사할 때에는 음절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모음의 출현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절 또는 음소로 서사하기로 한다²⁵⁾.

- ① 모음이 음절의 첫머리에 출현할 때에는 음절성을 부여한다.

예) aga [아가] ‘밥’

- ② 모음이 연달아 출현할 때, 뒤의 모음은 음절성을 부여한다(반모음도 동일).

예) tai [타이] ‘토란’

- ③ 동일 모음이 연이어 출현할 때에는 장음 표시 보조 기호를 사용한다.

예) agaa [아가:] ‘밥짓다’

- ④ 반모음이 음절의 첫머리에 출현할 때에는 음절성을 부여한다.

예) yakai [이아까이] ‘있다’

- ⑤ 반모음이 자음 바로 뒤에 출현할 때에는 동일 부위의 모음으로 간주한다.

예) mwa [무아] ‘가다’

3. 음절 구조별 한글 서사

한글은 음절 단위 모아쓰기를 전제로 고안된 것이므로, 음절의 구조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루카이어의 음절 구조를 조사해 놓은 학술보고는 齊莉莎(2000, 50)의 연구가 유일한 것이다. 原民會(2005)에는 음절 구조에 대한 언급

25) 게재 적합 판정을 위한 심사 단계에서 ya를 [야]로, mwa를 [뫼]로, wa를 [와]로 서사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익명의 심사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훗날 수정안을 마련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이 없고 음운 체계에 대한 보충 설명에서 복자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原民會(2005)의 보충 설명 1)에서 /dr/를 복자음으로 본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 해당 음소 자체가 복자음이 아니라 표기법에서 자음을 겹쳐 표기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루카이어에는 복자음이 없다.

齊莉莎(2000, 50)에 열거된 음절 구조별로 한글 서사를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CV	la	[라]	‘곧’
CVV	tai	[타이]	‘토란’
CYV	mwa	[무아]	‘가다’
CVCV	pitu	[삐뚜]	‘7’
CVVCV	daane	[다:너]	‘집’
CYVCV(CV)	mwaciLi	[무아치티]	‘떨어지다’
CVYCV	paysu	[빠이수]	‘돈’
VCV	aga	[아가]	‘밥’
VCVV	agaa	[아가:]	‘밥짓다’
YVCV(V)	yakai	[이야카이]	‘있다’

위의 음절 구조 유형에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은 어두에 CC구조의 복자음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어말에도 없다. 특히 어두에 CC구조가 있으면 한글 서사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CC는 아니지만 다소 흡사한 점이 있는 것은 CY구조이다. 즉 자음과 반자음이 연이어 출현하는 구조가 그것이다. 이를테면 CYV란 구조의 예로 제시된 단어 mwa(‘가다’)가 문제라면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무아] 또는 [므와]로 서사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자음 뒤에 출현하는 반모음을 모음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음절로 서사하는 것이, 그 앞 자음에 대하여 음절성을 부여하는 것에 비하여 원음에 가까울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음절 구조 가운데 또 하나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음이 연이어 나오는 VV구조이다. 이를테면, CVV tai ‘토란’을 2음절로 서사할 것인가, 1음절로 서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모음이 연이어 왔을

때 어말 모음에 음절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음에 가깝고 서사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VV구조 가운데 동일 모음이 연이어 나오는 예도 있다. 이를테면, VCVV agaa ‘밧짓다’가 그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장모음 문제이므로 장음 표시 보조 기호 [:]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아가아]라는 서사 방식보다 [아가:]라는 서사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V. 루카이어 한글 서사법

앞 장에서 검토한 루카이어 한글 서사법을 하나의 체계로 도식화 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26).

자음	로마자모	국제음표	한글자모	비고
쌍순파열음(무성)	p	p	ㅂ	
(유성)	b	b	ㅃ	
설첨파열음(무성)	t	t	ㄷ	
(유성)	d	d	ㄸ	
설근파열음(무성)	k	k	ㄱ	
(유성)	g	g	ㄲ	
권설파열음(유성)	D(dr)	d̪	ㄴ	*
설첨파찰음(무성)	c	ts	ㅈ	
순치마찰음(유성)	v	v	ㅊ	
치간마찰음(무성)	th	θ	ㅌ	*
(유성)	z(dh)	ð	ㅎ	*
설첨마찰음(무성)	s	s	ㅍ	
喉 마찰음	(h)	h	ㅎ	
쌍순 비음	m	m	ㅁ	
설첨 비음	n	n	ㄴ	
설근 비음	ng	ŋ	ㅇ	

26) 비고란에 * 표시를 해둔 다섯 가지 자음은 한글 유희 자모를 활용하여 서사한 것이므로 한국어의 발음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주 23)과 24)에서 설명하였듯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나, 현지인들에게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

설침설측음	l	l	ㄹ	
권설설측음	L(lr)	ㄹ	ㅍ	*
설침顛音	r	r	ㄲ	*
쌍순반모음	w	w	우/ㅜ	
설면반모음	y	j	이/ㅣ	
계	21	21	21	

모음	한글자모	모음	한글자모
i	ㅣ/이	u	ㅜ/우
e	ㅑ/어	o	ㅓ/오

VI. 루카이어 한글 서사 예시

1. 기본 어휘²⁷⁾

1) 숫자

1.	‘하나’	[이짜]	itha
2.	‘둘’	[쿠사]	Dusa
3.	‘셋’	[뚜투]	tuLu
4.	‘넷’	[서빠띠]	sepate
5.	‘다섯’	[티마]	Lima
6.	‘여섯’	[어너머]	eneme
7.	‘일곱’	[빠뚜]	pitu
8.	‘여덟’	[바투]	vaLu
9.	‘아홉’	[바아띠]	bangate
10.	‘열’	[마아러]	mangeale
100	‘백’	[이다이]	idai

27) 루카이어 어휘에 대한 한글 서사 예시는 齊莉莎(2000, 141-152)에 실려 있는 어휘를 숫자와 일반 어휘로 나누어 정리해놓았다. 원문에서는 중국어, 영어, 루카이어 순으로 되어 있고, 중국어는 첫 음절 한자의 획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중국어와 영어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옮기고 한국어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알파벳으로 서사된 루카이어는 그대로 두었다. 한글 서사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비교해볼 자료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일반 어휘

‘가까운’	[아더:찌]	adeethe	‘마른’	[마무아러]	mamwale
‘가리키다’	[우아치끼]	waciki	‘마음’	[아황:황]	avaava
‘가지’	[빠라까]	palaka	‘가다’	[무아]	mwa
‘갑상선종’	[루루우]	lulungu	‘가벼운’	[마리아빠이]	maliapai
‘걷다’	[우아다더다바쳐]	wadadedavace	‘간’	[아짜이]	athai
‘꿈’	[추마이]	cumay	‘개’	[따우뿌우]	taupungu
‘구름’	[어머:머]	emeeme	‘고기, 살’	[부아떠]	bwate
‘굽다, 활쫓다’	[우아가차가쳐]	wagacegace	‘과일’	[마쿠]	maDu
‘기다리다’	[우아카카우]	waDaDaw	‘굽다’	[우아:까머]	waakame
‘긴 창(矛)’	[타부]	Labu	‘금기’	[뚜아리시아너]	twalisiane
‘길(路)’	[까다타나너]	kadaLanane	‘기름진’	[시마]	sima
‘깨끗한’	[마부:라]	mabuula	‘긴’	[마타기]	maLagi
‘꿈을 꾸다’	[우아시빠]	wasipi	‘깎개’	[사빠:]	sapaa
‘바느질하다’	[우아차이시]	wacaisi	‘껴안다’	[우아바파떠]	wabarate
‘끓다, 썰다’	[우아까치아너]	wakaciane	‘평’	[빠다바짜너]	padavazane
‘나무’	[아아:아뚜아너]	angaangatwane	‘끈적한’	[마마다끼치]	mamadakici
‘나쁜’	[마:리시]	maalisi	‘나’	[꾸나꾸]	kunaku
‘날다’	[니아빠라이]	nyapalay	‘나무’	[아아뚜]	angatu
‘날카로운’	[마가파어]	magarange	‘냇시하다’	[사라꼬꾸이리]	salakokuili
‘남동생, 여동생’	[아기]	agi	‘날다람쥐’	[타황]	Lava
‘낮’	[황이아너]	vayane	‘낮은, 오래된’	[미수빠티]	masupili
‘네’	[꾸수]	kusu	‘남자’	[사우황라이]	sawvala
‘넘어지다’	[무아켜꺼]	mwaDeke	‘냄새를 맡다’	[우아사바티]	wasabaLi
‘노래하다’	[우아서나이]	wasenay	‘너희’	[꾸누미]	kunumi
‘눈’	[마차]	maca	‘노끈, 밧줄’	[차리시]	calisi
‘다리’	[카빠터]	DapaLe	‘누구’	[아니아너]	aneane
‘달, 월’	[카마파]	Damare	‘다람쥐’	[부부:뚜]	bubuutu
‘닭’	[꾸:까]	kuuka	‘달다’	[우아어러버]	waelebe
‘대답하다’	[뚜아바터]	twabaLe	‘달리다’	[우아라이라이]	walayla
‘던지다’	[우아두꾸루]	wadukulu	‘대나무’	[바러바러]	balebale
‘돌’	[터너겨]	Lenege	‘더러운’	[마꾸쿠루]	makuDulu
‘뒤’	[리리꾸쿠]	lilikuDu	‘덧, 함정’	[까떠머]	kateme
‘들쥐’	[꾸타바우]	kuLabaw	‘두꺼운’	[마꾸커머터]	makuDemeLe
‘따라가다’	[뚜아빠타]	twapaLa	‘들다’	[끼아타라]	kyaLala
‘떠다니다’	[무아루쿠]	mwaluDu	‘등나무’	[우하이]	uvay
‘뛰다’	[우아이뚜꾸]	waituku	‘땅’	[다어다어]	daedae

‘똥’	[차끼]	caki	‘아버지’	[따따마]	tatama
‘뜨거운’	[마카타어타어]	maDaLangeDange	‘안개’	[어머:머]	emeeme
‘마시다’	[우아우우루]	waungulu	‘알’	[바뚜:꾸]	batuuku
‘말하다’	[까우피빠]	kawriwa	‘앞’	[추추부우]	cucubungu
‘머리 이’	[꼬초]	koco	‘양’	[끼시시]	kisisi
‘머리카락’	[이시우]	isiw	‘어린이’	[라라꺼]	lalake
‘면’	[아다이리]	adaili	‘얼굴’	[티아우]	Lingaw
‘모기’	[뚜라우타우우]	tulawLawngu	‘머리’	[아우투]	awLu
‘모자’	[따우뿌누]	tawpunu	‘먹다’	[우아까너]	wakane
‘무거운’	[마떠터거]	mateLeg	‘멧돼지’	[바부이]	babuy
‘무서워하다’	[무아:꾸루쿠]	mwaakuluDu	‘모래’	[어나이]	enay
‘물’	[아치라이]	acilay	‘목욕하다’	[마바나우]	mabanaw
‘물다’	[우아까:척]	wakaace	‘무릎’	[빠추루]	paculu
‘바나나’	[버러버러]	belebele	‘무지개’	[바티라우라우]	baLilawlaw
‘밤’	[마우우]	maungu	‘물고기’	[까:어]	kaange
‘밭, 농장’	[우마우마]	umauma	‘미끼’	[빠어너]	paene
‘배(胃)’	[비추까]	bicuka	‘바람’	[왓타기]	vaLigi
‘배우자’	[따우바너]	tawvane	‘방귀’	[빠라척]	pilace
‘뱀장어’	[뚜라]	tula	‘배(腹)’	[바파어]	barange
‘별꼴’	[학루]	valu	‘배부른’	[마부추꾸]	mabucuku
‘벼’	[빠가이]	pagay	‘뱀’	[수타우]	suLaw
‘보다’	[우아커:러]	waDeele	‘버섯’	[따마피이]	tamaringi
‘불다’	[마사서벼퍼]	masasevere	‘배를 짜다’	[우아띠누누]	watinunu
‘비둘기’	[따학거]	tavage	‘별’	[따피아우]	tariaw
‘빌리다’	[끼아사:투]	kiasaaLu	‘불’	[아뿌이]	apuy
‘뼈’	[추:타러]	cuuLale	‘비(雨)’	[우다러]	udale
‘사냥하다’	[우아루뿌]	walupu	‘빈랑나무(열매) [사희끼]		saviki
‘사람’	[우마우마서]	umaumase	‘뺨다’	[우아찌빠찌빠]	wathepethepe
‘살, 피부’	[비치이]	bicingi	‘뿌리’	[바라척]	balace
‘삶다’	[우아:가]	waaga	‘사다’	[우아라아이]	walangay
‘새(鳥)’	[아짜짜머]	azazame	‘사슴’	[사라우아너]	salawngane
‘서캐’	[꾸추]	kucu	‘살아있는’	[무아키빠]	mwaDipi
‘세탁하다’	[우아시나]	wasina	‘상처’	[두라]	dula
‘수영하다’	[우아라우이]	walanguy	‘새것의, 새로운’	[바:바너]	baavane
‘술’	[바:학]	baava	‘설거지하다’	[우아시나우]	wasinaw
‘숨쉬다’	[우아이:빠]	waiipi	‘소나무’	[아터어]	aLenge
‘쏘다’	[우아빠나]	wapana	‘술 취하다’	[마부수꾸]	mabusuku
‘슬개’	[빠더]	pede	‘숨기다’	[우아서꺼떠]	wasekete

‘쌀’	[버과찌]	berathe	‘코’	[우우아너]	ngunguane
‘쏟’	[마빠리리]	mapalili	‘탈곡하다’	[시아루부]	sialubu
‘아래(쪽)’	[러:버]	leebe	‘토란’	[따이]	tai
‘아빠’	[아마:]	amaa	‘트림하다’	[우아바서어]	wabasenge
‘앉다’	[우아너너]	wanene	‘파리’	[아타터거러]	aLaLegele
‘알다’	[우아찌아러]	wathingale	‘팔꿈치’	[빠꾸]	piku
‘얇은’	[마푸비피]	marubiri	‘폐, 허파’	[빠파추아너]	paracungane
‘어두운’	[마카키미디]	maDaDimidi	‘풀’	[우부루]	ubulu
‘어머니’	[따아띠나]	tiatina	‘핏줄, 혈관’	[따과싸너]	tarazane
‘얼마나’	[빠아]	pia	‘하품하다’	[미시빠빠러어]	misipepelenge
‘엄마’	[이나]	ina	‘허벅지’	[하가시]	vagasi
‘연기, 담배’	[어버티]	ebeLe	‘활’	[부:]	buu
‘오다’	[우아껴라]	wakela	‘흠치다’	[우아쿠:빠]	wakuupa
‘오줌’	[푸:루]	ruulu	‘여자’	[아바바이아너]	ababayane
‘원(쪽)’	[비피]	viri	‘열다’	[우아라버]	walabe
‘우두머리’	[따리아라라이]	talyalalay	‘오른(쪽)’	[하나너]	vanane
‘우리들’	[꾸나이]	kunai	‘웃, 의복’	[끼빠이, 라이마이]	kipingi, laymay
‘웃다’	[무아타까이]	mwaLakay	‘요리, 반찬’	[다마이]	damay
‘위(쪽)’	[버리어]	belenge	‘우리’	[꾸따]	kuta
‘음식 찌꺼기’	[따아서]	tingase	‘울다’	[우아뚜비]	watubi
‘이마’	[뿌:누]	puunu	‘원숭이’	[뚜아부투]	twabuLu
‘익은’	[마터머]	maLeme	‘유방, 젖’	[쭈:쭈]	thuuthu
‘잎’	[하사우]	vasaw	‘이름’	[나가너]	nagane
‘작은’	[띠끼짜너]	tikithane	‘이슬’	[라무]	lamu
‘잡다’	[마타]	maLa	‘일을 하다’	[우아카우우]	wakaungu
‘절구 공이’	[아수투]	asuLu	‘자리를 깔다’	[우아사빠]	wasapa
‘절뚝거리다’	[빠라빠라이]	pilapilay	‘잠자다’	[우아:빠치]	waapece
‘종아리’	[뚜루후]	tulungu	‘적(敵)’	[바싸]	baza
‘주다’	[우아바:이]	wabaay	‘절구, 막자사발’	[루:우]	luungu
‘죽은’	[마빠차이]	mapacay	‘젓은’	[마카빠어]	maDapenge
‘지방’	[차황티]	cavaLi	‘좋은’	[마:짜피리]	maatharili
‘집돼지’	[버:껴]	beeke	‘죽순’	[뚜부푸]	tuburu
‘짧은’	[어껴까너]	eDekane	‘죽이다’	[빠빠차이]	papacay
‘채소’	[라쳐어]	lacenge	‘집’	[다:너]	daane
‘체(筵)’	[뚜아사빠]	twasapa	‘짚다, 더듬다’	[우아수라빠]	wasulape
‘치다, 두드리다’	[우아히시히시]	wavisivisi	‘차가운’	[마껴쳐러]	makecele
‘친구’	[따타기]	taLagi	‘천산갑(동물)’	[까과싸]	karaza
‘침’	[아타이]	ngaLay	‘춤추다’	[우아카라이]	waDalay

‘치다’	[우아투마이]	waLumay	‘팔다’	[끼아라하이]	kyalangay
‘침’	[이너마이]	inemay	‘표범’	[티꾸라우]	Likulaw
‘칼’	[아커머]	aDeme	‘피’	[어파이]	eray
‘큰’	[마카우]	maDaw	‘하늘’	[버리어]	belenge
‘태우다’	[우아라우부]	walaubu	‘해, 넌’	[차이리]	caili
‘토하다’	[우아우따]	wauta	‘형, 오빠, 누나, 언니’	[따:까]	taaka
‘파내다’	[우아투꾸]	waluku	‘활시위’	[차리시]	calisi
‘파인애플’	[빠우카리]	panguDale			

2. 문장 예시(28)

- (1) “ai, ai, culu-a ku beeke-numi si pa-kane ki ruthaipane”
 아이, 아이, 추루-아 꾸 버:꺼-누미 시 빠-까너 끼 푸짜이빠너
 [唉 唉 殺-命令 斜格豬 -我們 和 讓-吃 斜格 ruthaipane]
 아 아 죽이라고 명령하다 돼지 우리들 와 먹게하다 돼지 ruthaipane
 “唉, 唉, 殺我們的豬給 ruthaipane 吃”
 “아, 아, 우리의 돼지를 죽여 ruthaipane에게 먹였다.
 『아이, 아이, 추루-아 꾸 버:꺼-누미 시 빠-까너 끼 푸짜이빠너』”
- (2) “a naw-katwase-ana alupu” la yaku taeLeLe-ini.
 아 나우-까투우아사-아나 아루뿌 라 이아꾸 따어터타-이니
 [啊 我 -走 -還 打獵 就 這樣 先生 -她]
 아 나 가다 돌아오다 사냥 곧 저것 선생 그녀
 ‘她的先生(就)說: “我要去打獵”’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나는 사냥을 갈 거야.”’
 『아 나우-까투우아사-아나 아루뿌 라 이아꾸 따어터타-이니』”
- (3) la LiaLingulu sasada kuini lasu
 라 티아티우루 사사다 꾸이니 라수

28) 루카이어 문장에 대한 한글 서사 예시는 齊莉莎(2000, 135-139)의 “魯凱語的長篇語料”의 22개 문장 가운데 19개를 한국어로 옮기고 한글로 서사해본 것이다. 각각의 문장은 ①알파벳으로 서사한 것, ②한글로 서사한 것, ③중국어 逐字 번역, ④한국어 축자 번역, ⑤ 중국어 번역, ⑥한국어 번역, ⑦한글로 서사한 루카이어 문장. 이상 7종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어 번역 2종을 그냥 둔 것은 훗날 이를 다시 검토해보는데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就 外面 休息 那 男]
 곧 외부 휴식 저 남자

‘(他打獵之後)在外面休息’

‘(그는 사냥을 다녀온 후) 밖에서 휴식을 취했다.’

『라 티아티우루 사사다 꾸이니 라수』

- (4) la “ai, ai, pa-kadav-a, tikiane, ikaikasapu kai” ruthaipane la ya.
 라 아이, 아이, 빠-까다방-아, 띠끼아너, 이까이까사뿌 까이 푸짜이빠너 라 이아
 [就 唉, 唉, 讓-給-命令 太少 有夠 不 ruthaipane 就 這樣]
 곧 아 아 주라고 명령하다 너무 적다 충분하다 아니다 ruthaipane 곧 이렇게
 ‘ruthaipane(又)說: “唉, 唉, 給我 … 太少、不夠”
 ‘ruthaipane 말했다: “아, 나에게 준건 너무 적어. 부족해.”
 『라 아이, 아이, 빠-까다방-아, 띠끼아너, 이까이까사뿌 까이 푸짜이빠너 라 이아』

- (5) “ani-ya ku azazame lu-kiLaL-aku” la ya kuini tawane-ini.
 아나-이아 꾸 아짜짜머 루-끼타트-아꾸 라 이아 꾸이니 타우아너-이니
 [爲何-這樣 ku 鳥 當-聽 -我 就 這樣 那 先生 -她]
 왜 이렇게 ku 새 담당하다 듣다 나 곧 이렇게 저 선생 그녀
 ‘她的先生(就問): “(我)怎麼會聽到一隻鳥(在講話)”
 ‘그녀의 남편이 물었다: “(내가) 어떻게 새소리를 들었겠어?”
 『아나-이아 꾸 아짜짜머 루-끼타트-아꾸 라 이아 꾸이니 타우아너-이니』

- (6) “ala naw-tu-kaange” la ya
 아라 나우-뚜-까:어 라 이아
 [就 我-做-魚 就 這樣]
 곧 나 요리하다 물고기 곧 저렇게
 ‘他說: “好了, 我就去釣魚”
 ‘그가 말하길: “좋아,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아라 나우-뚜-까:어 라 이아』

- (7) “ai, ai, kai pa-kamia” kai ruthaipane
 아이, 아이 까이 빠-까미아 까이 푸짜이빠너
 [唉 唉 不 讓-吃 那 ruthaipane]
 아 아 아니다 먹게 하다 저 ruthaipane
 ‘ruthaipane說: “唉, 唉, (你) 給我的不夠”
 ‘ruthaipane 말했다: “아, 너가 준 것은 나에게겐 부족해”
 『아이, 아이 까이 빠-까미아 까이 푸짜이빠너』

- (8) la katwase u-baLiw kuini lasu.
 라 까뚜아서 우-바티우 꾸이니 라수
 [就 去 回-村 那 男]
 곧 가다 마을로 돌아가다 저 남자
 ‘那個男的又回家去了’
 ‘그 남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라 까뚜아서 우-바티우 꾸이니 라수』
- (9) “ani-ya kui azazame” la ya.
 아나-이아 꾸이 아짜짜머 라 이아
 [爲何-這樣 那 鳥 就 這樣]
 왜 이렇게 저 새 곧 이렇게
 ‘他說：“怎麼會有一隻鳥（在我身邊講話）？”’
 ‘그가 말하길: “어떻게 새소리가 들렸어?”’
 『아나-이아 꾸이 아짜짜머 라 이아』
- (10) la katwase musela ukaDavane tu-kaange kuini lasu
 라 까뚜아서 무서라 우까카하너 뚜-까:어 꾸이니 라수
 [就 去 再 河流 做-魚 那 男]
 곧 가다 다시 강 만들다 물고기 저 남자
 ‘那男的又到河流去釣魚’
 ‘저 남자는 또 강으로 가서 낚시를 했다.’
 『라 까뚜아서 무서라 우까카하너 뚜-까:어 꾸이니 라수』
- (11) la pupaene ku cekecekebe, pwa-taburu ki acilay.
 라 뿌빠어너 꾸 처꺼쳐꺼버, 뿌아-따부푸 끼 아치라이
 [就 準備 ku 大塊肉 弄-打 ki 水]
 곧 준비하다 ku 큰 고깃덩어리 하다 치다 ki 물
 ‘他就準備大塊肉。(有個東西)打水’
 ‘그는 바로 큰 물고기를 낚았다. (어떤 물건으로) 물을 쳤다.’
 『라 뿌빠어너 꾸 처꺼쳐꺼버, 뿌아-따부푸 끼 아치라이』
- (12) ala makiLikiLiu aLa ka tasikaLakaLathane ki ruthaipane.
 아라 마끼티끼티우 아타 까 따시까타까타짜너 끼 푸자이빠너
 [那 抓 拿 ka 手腕 ki ruthaipane]
 저 잡다 잡다 ka 손목 ki ruthaipane
 ‘(那個男的)抓到 ruthaipane 的手腕’
 ‘(그 남자는) ruthaipane의 손목을 잡았다.’

『아라 마끼티끼티우 아타 까 따시까타까타짜너 끼 푸자이빠너』

- (13) "aLa-su ka amani ka tara-apapidaidaLenakuane" la ya kuini lasu.
 아타-수 까 아마니 까 따파-아빠빠다이다타너꾸아너 라 이아 꾸이니 라수
 [拿-你 ka 是 ka 騙 我 就 這樣 那 男]
 잡다 너 ka 옳다(이다) ka 속이다 나 곧 이렇게 저 남자
 '那個男的說: "(我) 抓到你, (原來) 是你在騙我的"'
 '저 남자는 말했다: "(내가) 너를 잡은 건, 너가 나를 속였다는 걸 알았어."
 『아타-수 까 아마니 까 따파-아빠빠다이다타너꾸아너 라 이아 꾸이니 라수』

- (14) si ubaLiu, la kela tavanane,
 시 우바티우, 라 꺼라 따빠나너
 [和 回村 就 到 家名]
 와 마을로 돌아가다 곧 다다르다 집
 '然後 (他們) 就回家'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시 우바티우, 라 꺼라 따빠나너』

- (15) "amaniku tara-upiyayaya nakuane" la ya kuini taeLeLe-ini
 아마니꾸 따파-우빠이아이아이아 나꾸아너 라 이아 꾸이니 따어터터-이니
 [是 騙 我 就 這樣 那 先生 -她]
 옳다(이다) 속이다 나 곧 이렇게 저 선생 그녀
 '她的先生說: "(原來) 是你騙我的"'
 '그녀의 선생님은 말했다: "(원래) 너는 나를 속였잖아."
 『아마니꾸 따파-우빠이아이아이아 나꾸아너 라 이아 꾸이니 따어터터-이니』

- (16) la pwa puLapa kuini lasu.
 라 뿌아 뿌타빠 꾸이니 라수
 [就 弄 開水 那 男的]
 곧 하다 물을 끓이다 저 남자의
 '那個男的就煮開水'
 '저 남자는 곧 물을 끓여 삶았다.'
 『라 뿌아 뿌타빠 꾸이니 라수』

- (17) "bual-a, nawpaw" la ya ki ruthaipane,
 부알-아, 나우빠우 라 이아 끼 푸자이빠너
 [來 -使 我-洗頭 就 這樣 ki ruthaipane]

오다 시키다 나 머리를 감다 곧 저렇게 ki ruthaipane
 ‘(他)對 ruthaipane 說: “來, 我要幫你洗頭髮”
 ‘ruthaipane 說: “이리와, 내가 너 머리 감는 것을 도와줄게.”
 『부알-아, 나우빠우 라 이아 끼 푸짜이빠너』

(18) la pwa gugu ku kinuLapane awLu ki ruthaipane
 라 뿌아 구구 꾸 끼누타빠너 아우투 끼 푸짜이빠너
 [就 弄 倒 ku 熱水 頭 ki ruthaipane]
 곧 하다 넘어지다 ku 더운물 머리 ki ruthaipane
 ‘然後他倒熱水在 ruthaipane 的頭上’
 ‘그 후에 그는 더운물을 ruthaipane의 머리에 부었다.’
 『라 뿌아 구구 꾸 끼누타빠너 아우투 끼 푸짜이빠너』

(19) “kikiki” la ya si a-tila la mwa ki taraeDaeDane.
 끼끼끼 라 이아 시 아-띠라 라 무아 끼 따파어카어카너
 [kikiki 就 這樣 和 變-老鼠 就 去 ki 牆]
 kikiki 곧 이렇게 와 쥐로 변했다 곧 가다 ki 담장
 ‘(她出聲音) “kikiki” 就變成老鼠, 進去牆裡’
 ‘(그녀는 소리 내었다.) “kikiki” 그러자 쥐로 변하여 담장으로 들어갔다.’
 『끼끼끼 라 이아 시 아-띠라 라 무아 끼 따파어카어카너』

VII. 맺음말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루카이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을 창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일련의 작업을 개괄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루카이어의 한글 서사법을 입안함에 있어서 6종 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절충방언(cross dialect) 포괄 방식보다 가장 유력한 방언인 霧台 방언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방언(koine) 선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둘째, 霧台 방언의 음운 체계에 있어서 李壬癸(1991), 齊莉莎(2000), 原民會(2005)의 연구는 대동소이하다. 즉, 모음은 동일(총 4개)하지만 자음은 22개설과 20개설로 양분된다. 본고에서는 齊莉莎(2000)의 20개에다 후음 h를 첨가한 21개 자음을 대상으로 한글 자모를 대응시켰다.

셋째, 루카이어에는 꼬리자음이 없는 점, 모음이 4개 밖에 되지 않는 점, 성조가

없는 점, 복자음이 없는 점, 음절구조가 단순한 점 등등이 한글 서사의 적합성(adaptability)을 높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본고에서 창제된 한글 서사법의 효율성과 신빙성을 높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본고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루카이어 한글 서사법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음성학적 유사성에 따를 수 없어 부득이 遊休 자모를 활용한 것 5개를 꼽을 수 있다: /e/ → [ㅉ], /ð/ → [ㅆ], /d/ → [ㄱ], /r/ → [ㅍ], /l/ → [ㄷ].

루카이어 한글 서사법의 적합성을 집계해 보자면, 모음 음소의 서사 적합도 100%, 음절 구조 유형별 서사 적합도 100%, 자음 음소의 서사 적합도 76%(16/21×100)이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한 평균 적합도는 92% (276÷3)이다. 한 언어를 음성자모로 서사함에 있어서 적합도가 100%는 될 수는 없다. 국제음표를 활용한 정밀전사(narrow transcription)가 아닌 이상, 100%의 적합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음성 자모 서사법(writing system)으로서 92%의 적합도를 시현한 루카이어 한글 서사법은 이로써 그 우수성의 한 단면을 객관적으로 보여 준 셈이다.

이 서사법이 루카이어 사용자들에게 실제로 활용되어 그 유용성이 증명되자면 앞으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이론적 기초를 확보한 첫 걸음에 불과한 것이다. 이 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어려울 수 있는 실제 활용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마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될는지도²⁹⁾ 모를 일이겠으나, “無始無終, 有始有終”이란 말을 믿으며 줄고를 맺는다. “有志竟成”이란 말을 증명할 “有志者”의 출현을 기다려 보면서...

29) 한국어를 위한 한글 서사법이 창제되어 공식적인 서사체계로 널리 쓰이기까지 수백 년이 걸린 사실을 상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국왕의 심혈과 명령에 의하여 창제된 것도 그러하였을 진대, 일개 외국인 학자에 의하여 처음 만들어진 것이 타 민족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활용되자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비가 기다라고 있을지는 누구나 쉽게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결코 아니다. 어려운 일일 수록 더욱 값진 것이기에.

【參考文獻】

- 김주원 등 2008 《사라져 가는 알타이 언어를 찾아서》, 태학사.
- 다니엘스 2006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집단(가오산족)〉; 《중국소수민족입문》(李妍周 등 번역, 서울: 현학사), 273-281.
- 이현복 1981 《국제 음성 문자와 한글 음성 문자》, 과학사.
- 이호영 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 전광진 2001 〈중국 내 소수민족(55) 언어의 지리 분포와 유형학적 특징〉; 《중국문학연구》 22, 343-367.
- _____ 2002 〈중국 내 소수민족(55)의 서사체계 및 새로운 문자 창제〉; 《중국언어연구》 15, 195-228.
- _____ 2003 〈로바어와 그 한글 서사법〉; 《중국언어연구》 17, 275-317.
- _____ 2004 〈韓文의全球化: 珞巴語韓文書寫法的擬訂和推廣〉; 《韓國語文研究》(대만) 2, 173-193.
- _____ 2008 〈중국경내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 방안 탐구〉; 《중국문학연구》 37, 423-443.
- _____ 2009 〈타이완 원주민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 개발 연구〉; 《중어중문학》 45, 351-388.
- _____ 2010 〈타이완 원주민 부눈족 언어의 한글 서사 체계〉; 《중국문학연구》 41, 257-280.
- 高 偉 2008 《臺灣少數民族—魯凱》, 台海出版社. 北京.
- 潘 英 1998 《臺灣原住民族布的歷史源流》, 台原出版社. 台北.
- 李壬癸 1991 《臺灣南島語言的語音符號系統》 教育部教育研究委員會.
- _____ 1997 《臺灣南島民族的族群與遷徙》, 常民.文化出版社. 台北.
- _____ 1975 〈馬加音韻初步報告〉《國立臺灣大學考古人類學刊》 37/38:16-28
- _____ 1992 《臺灣南島語言的語音符號系統》 台北:教育部教育研究委員會.
- _____ 1997 〈多納方言〉在《高雄縣南島語言》李壬癸編, 高雄縣政府, 119-157頁.
- 吳天泰 2007 《台灣原住民族布導論》 五南圖書出版, 台北.
- 何芳, 曾思奇, 林青春 1987 《高山族語言簡志》 北京: 民族出版社.
- 原民會 2005. 《原住民族語言書寫系統》. 行政院原住民族委員會、教育部. 台北.
- 克來爾 (Saillard, Claire) 1997 〈茂林方言: 講詞與句法〉在《高雄縣南島語言》李壬癸編. 高雄: 高雄縣政府, 8-118頁.
- 何大安 1983 〈魯凱語的親屬關係〉, 《歷史語言研究所期刊》 54.1:121-168
- Chen, Cheng-fu (陳承甫) 1999 Wh-words as Interrogatives and Indefinites

- in Rukai. MA thesis, Taipei: National Taiwan University.
- Ferrell, Raleigh (費羅禮) 1969 Taiwan Aboriginal Groups: Problems in Cultural and Linguistic Classification. Taipei: Institute of Ethnology, Academia Sinica. Monograph No.17.
- Kuo Ching-hua (郭青華) 1979 Rukai complementation. (魯凱語的補語結構) MA thesis, Taipei: Fu Jen University.
- Li, Jen-kuei (李壬癸) 1973 Rukai structure. (魯凱語結構) Taipei: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Special Publications, No.64.
- _____ 1975 Rukai texts (魯凱語料) Taipei: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Special Publications, No.64.2.
- _____ 1977 The internal relationships of Rukai(魯凱語內部之關係)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48.1:1-92
- _____ 1996 The pronominal systems in Rukai. In the Festschrift in honour of Professor Isidore Dyen. 209-230. Hamburg: Abera Publishing House. Ogawa, Naoyoshi and Asai Erin
- Saillard, Claire (克來爾) 1995 Is Maga accusative or ergative? Evidence from case marking(馬加方言是否賓格或作格語言?) 《第一屆臺灣語言國際研討會論文選集》59-72.台北: 文鶴出版有限公司。
- Shelley, George 1979 Wudai Rukai, the language, the context and its relationships(魯凱語的霧台方言, 語言, 環境, 關係) Ph.D dissertation, Hartford University.
- Starosta, Stanley 1997 Formosan clause structure: Transitivity, ergativity, and case markin. In Tseng Chiu-yu(ed.) Chinese Languages and Linguistics, IV: Typological studies of Languages in China. Symposium Series of the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No.2. Taipei: Academia Sinica.
- Tsuchida, Shigeru (土田滋) 1976 Reconstruction of Proto-Tsuoic phonology. (講擬古鄒語的語音系統) Study of Languages and Cultures of Asia and Africa Monograph Series No. 5. Tokyo: Institute of Languages and Cultures of Asia and Africa.
- Tu, Wen-chiu et al. 1991 A linguistic classification of Rukai Formosan.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stronesian Linguistics, University of Hawai'i.
- Tu, Wen-chiu 1994 A synchronic classification of Rukai dialects in Taiwan:

a quantitative study of mutual intelligibilit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rbana: Illinois University.

Zeitoun, Elizabeth (齊莉莎) 1995 Issues on Formosan linguistics. (臺灣南島語言相關議題) Ph.D University, Paris: University of Denis Diderot(Paris 7).

_____ 1997 Coding of grammatical relations in Mantauran(Rukai).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68.1:249-281.

【中文提要】

本論文以台灣南島語族中使用人口居第六位的魯凱語的韓文書寫體系為研究目的，具體內容概括如下。

第一，魯凱語的韓文書寫法研究不是針對六種方言的折衷方言(cross dialect)所進行的，而是把使用最廣泛的霧台方言作為標準方言(koine)而進行的。

第二，關於霧台方言的音韻體系，李壬癸(1991)，齊莉莎(2000)，原民會(2005)雖然都設定了4個元音，但在輔音的設定問題上所設的範圍却不盡相同，分別為22個和20個。本稿設定了21個輔音，即在齊莉莎(2000)所制定的20個輔音的基礎上，添加了喉音h，并把這21個輔音與韓文字母相互對應起來。

第三，魯凱語無輔音韻尾、只有4個元音、無聲調、無變輔音，音節結構比較簡單，這些特點更加突出了其利用韓文書寫體系的適應性(adaptability)。這一事實進一步證明了本稿所創的韓文書寫體系的高效性和可靠性。

第四，本稿首次提出的魯凱語的韓文書寫體系仍存在一些有待解決的問題。其中最大的一個問題就是因為無法找到對應語音的韓文字母，而不得不使用了5個剩餘字母。即，/ə/ → [ㅅ], /ð/ → [ㅆ], /d/ → [ㄷ], /r/ → [ㄹ], /l/ → [ㄴ]。

魯凱語韓文書寫體系的適應性概括如下：元音的適應度為100%，各種音節結構的書寫適應度為100%，輔音的書寫適應度為76%(16/21×100)。以上三大要素的平均適應度為92%(276÷3)。對於一種語言的語音書寫不可能達到100%的一致。除了運用國際音標的嚴式標音(narrow transcription)外，利

用語音字母書寫系統進行語音記象時能達到92%的適應度，從客觀的角度上十分有力地証明了韓文書寫体系的优越性。這一書寫体系若能被魯凱語的使用者所運用并在實踐中証明其可行性的話，今后爲了克服各种難關還需不斷的努力和相当長的一段時間。

【主題語】

韓文, 書寫体系, 音韻体系, 台湾, 原住民族, 魯凱族, 少數民族

투고일: 2011. 7. 10 / 심사일: 2011. 7. 20~8. 5 / 게재확정일: 2011. 8. 10